

중국왕조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 비교*

A Study of ancient Make-up trends in Chinese Portrait paintings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박옥련**

강사 박경미

Dept. of Fashion Design and Merchandising, Kyung-sung Univ

Professor : Ok Reon Park

Lecturer : Kyoung mee Park

Abstract

When analyzing make-up trends of figures shown in portraits of different eras in Chinese painting history, you can see that red color was used much. This can be because the red color is the most outstanding among all the colors and was most preferred by ancient people, as the color of the sun, the blood, and the sacredness. The women in the Tang Dynasty was especially using the red color much. Though Seongrihak (Neo-Confucianism) in Song Dynasty was the governing ideology, it had an influence even upon its aesthetics. Thus, during Song Dynasty, the beauty of logos appeared too. This phenomenon showed a conservative tendency even in make-up as well as in costume, thereby the concept of clear and elegant beauty was emphasized. The real figure in the Ming and Ching Dynasty, was so young and weak as a sample of a delicate woman that a woman who had feminine beauty was regarded as an ideal type. The feminine image had been gradually generalized from the literary works in the latter half of Ming Dynasty. However, the painters in the era still preferred the beauty of a healthy woman. That tendency probably had an influence even upon make-up culture that was shown in portrait. As an analysis result of make-up culture in Chinese portrait paintings, it reveals that ancient make-up trends much reflected the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of the periods.

Key Words : Portrait, Make-up, China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화장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미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원시 시대부터 사회적 지위는 물론 종교적인 의미까지 내포하면서 나름대로의 양식을 가지고 변화 발전하면서 시대적인 모든 현상을 반영한다. 또 화장은 사회·문화적 상황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국의 화장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국의 화장문화는 이민족의 문화를 수용한 다민족 국가로써 다양한 시대적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당대(唐代)는 중국 역사상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다. 이민족에게도 관대하고 개방적인 정책을 표방하였고, 장기간의 성세 속에서 당대 특유의 화려한 화장문화가 형성 될 수 있었다. 이는 당대의 인물화가인 주방의 잠화사녀도(簪花仕女圖) 중 공양인의 화장형태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당대를 대표하는 초승달 눈썹으로 화장을 했으며 작고 붉은 입술화장과 뺨 전체를 넓고 붉게 칠한 연지화장으로 은화하면서도 화려했던 여성의 화장문화를 엿볼 수 있다. 송대(宋代)에는 한대(漢代)의 화장법이 수용되어 순박하고 담아한 아름다움을 숭상하였고, 여성미는 화려하고 개방적인 것에서 청아하고 내면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화장문화 또한 당대에 비해 서민적이고 자연스러운 화장이 행해졌으리라 생각된다. 원대(元代)는 다시 다민족 국가였으나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Ok Lyun Park
Tel: 051) 620-4664, H.P: 010-3852-0621
E-mail: ylpak@ks.ac.kr

당시 사회 경제, 정치 등 각 방면에서 쇠약해졌다. 이는 화장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원대 이후에는 화장을 열게 하거나 거의 하지 않았다. 명대(明代)에는 한족(漢族) 문화가 소생되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호화롭고 아름다움을 숭상하였다. 여성들은 얼굴화장으로 연지와 분을 사용하였으나 화려하지 않으면서 수려하고 청아함을 중시하였다. 청대(清代)의 화장형태는 명대를 답습하였으나 어리고 연약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이 이상형으로 여겨져 명대의 여성보다 병약해 보이는 화장을 선호하였다.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된 여성의 미의식은 인물화에 잘 표현되어 있었다.

이에 화장의 형태가 잘 표현된 인물화를 선별하여 시대별로 고찰해 봄으로써 중국의 사회학적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한국의 화장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둔다.

논문의 연구내용은 화장이 얼굴의 각 부위로 세분화되고 형태도 다양해져 화장 문화가 전성기를 이루는 당대부터 중화민국이 시작되기 전인 명, 청대까지 인물화를 통하여 시대적 배경에 따른 여성의 화장문화를 고찰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시대적 배경과 화장문화의 변천

1) 당대(618-907년)

당대는 진시황 이후 중국이 통일을 이룩한 시기로 국토가 넓어지고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와도 문화를 교류하여 국제적으로 개방하였으며 경제가 성장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안정과 부흥을 이루었다 이는 복식뿐만 아니라 화장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현종 때는 십미도(十眉圖)라는 다양한 눈썹화장 양식이 있었는데, 당대 장필(張泌)의 「장대기」에 의하면 명황이 촉 지방에 행차하여 화공에게 명하여 십미도를 만들게 했는데 구체적인 명칭은 원앙미(鴛鴦眉)·소산미(小山眉)·오악미(五嶽眉)·삼봉미(三峰眉)·수주미(垂珠眉)·월능미(月稜眉) 혹은 각월미(卻月眉)·분초미(分稍眉)·함연미(涵煙眉)·불운미(拂雲眉) 혹은 횡연미(橫煙眉)·도운미(倒暈眉)이다 이에 궁녀들은 이를 토대로 눈썹화장을 하게 되었으며, 액황(額黃), 화전(花鈿), 면엽(面靨), 사홍(斜紅)[그림 1]등 독특한 부분화장도 함께 하였다. 당대 이후 인물화에는 화전이 많이 표현되었다. 화전은 미간이나 뺨에 꽃, 달, 별 등의 무늬를 그려 넣

은 화장을 말하는데 낙매장(落梅粧), 매화장(梅花粧)이라고도 한다. 화전은 송대 고승(高丞)의 「사물기원(事物紀原)」 관면수식부(冠冕首飾部)에는 화전이 페르시아나 인도의 습속에서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의 근저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대(漢代)이후 부녀자의 붉은 화장법은 나날이 증가하여 당대에는 연지와 분을 이용하여 얼굴색을 표현하였는데 [그림 2]에서 처럼 뺨을 붉게 칠하였다. 이는 당 현종 이후 더 유행하였는데 당시 현종의 총애를 받은 양귀비가 양 볼을 붉게 칠하는 화장법으로 교태 넘치는 농염한 분위기를 나타내어 이를 궁중 여인들이 앞을 다투어 모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은 당(唐) 천보연간의 것으로 보이는 아스타나 187호묘 출토 전본회화인 혁기사녀도(弈棋仕女圖)의 일부분으로 이마에 화전을 그려 넣고 얼굴의 양 뺨에 붉게 연지화장을 했으며 입술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일부만 바르는 화장이 유행하였다. 혁기사녀도의 얼굴은 풍만, 농염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했던 당대의 풍조를 반영하고 있다.



출처: 동양복장사하고, 中國五天年女性裝飾史

[그림 1] 돈황굴공양인 [그림 2] 혁기사녀도

2) 송대(960-1279년)

당대와는 달리 정세가 안정되지 못하여 분쟁과 타협을 계속하였으며 당대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움에 반하여 서민적이고 소박한 문화가 발달하였다. 또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순박하고 담아한 아름다움을 숭상하기 시작하여 여성미는 화려하고 개방적인 것에서 청아하고 내면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화장문화도 당대의 귀족적이고 화려한 화장보다는 시대상을 반영 하듯 서민적이고 자연스러운 화장이 행해졌으리라 생각된다. 송대는 북방의 거(遼)·금(金)·원(元) 등과 동시에 주요 패권을 함께 했고, 북방민족이 중원에 입주한 후 한족과의 경제·문화·생활풍속 등 많은 부분에서 교류하여 서로 영향을 미쳤다. 송대에 들어 오면 이학(理學)이 성행하여 사람의 욕망을 없애고 천리를

따른다(去人欲存天理)는 주장으로 통치계급은 봉건질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여인들을 엄격히 속박했다.

성리학의 가르침에 따라 송대 사대부들의 복장은 당대에 비해 훨씬 검소했다. 여성들의 복장 역시 일반적으로 당대에 비해 자연미를 강조했다. 송대의 많은 학자들은 복식과 화장의 간단·소박·청결·자연스러움을 제창하였고, 또 지나치게 화려한 것을 반대하였다. 이는 화장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송대 여성의 화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부 화장으로 익모초와 석고(石膏)분으로 만든 옥녀도화분(玉女桃花粉)을 사용하였는데 눈썹은 산서성태원현 진사의 채색한 진흙에 그려진 [그림 3]의 굵게 그린 눈썹이 유행하였고 이 눈썹은 원앙눈썹이라 하여 당대의 십미도 중 첫 번째 눈썹의 형태이다. 연지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분(粉)과 병용되어 사용되었다. 남송시대의 여성들은 연지를 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발랐다. 뺨은 약간만 붉게 칠했고 당대와 북송시대에 유행이었던 짙게 칠한 윤곽이 선명한 눈 밑에 붉은 점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눈은 작게 그려졌고, 입술은 붉고 선명하게 표현 되었다.



출처: 중국복식5000년

[그림 3] 산서성태원현진사의채색한진흙

3) 원대(1279-1368년)

원대는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역을 지배한 몽골족의 국가였으나 이민족의 문화를 수용 하였고 송대에 이어 주자학이 붐미되었다. 불교는 황실이나 귀족의 비호아래 라마교가 성행하였고, 당시 사회 경제, 정치 등 각 방면에서 쇠약해져 있었다. 원대의 화장문화는 당대와 송대를 이어 지속되었는데, 장가구(張可久)의 「소양주(小梁州)·피서즉사(避暑即事)」 “석양이 건물 창가에 걸쳐 있네, 누가 볼까? 비단 부채로 흥장한 얼굴을 가린다”(高樓帘影挂斜陽 誰凝望 紈扇掩紅粧)의 기록으로 당시 여성들의 붉은 화장을 알 수 있다. 또 작자미상의 「희춘래(喜春來)」에 “녹색 빛 옷소매를 천천히 열어 희고 긴 손으로 화전을 미간에 붙인다”(翠袖輕 玉笋纖 花細宜點黛眉奈)는 기록으로 보아 화전이 여전히 사용되었음도 알 수 있다.

[그림 18]

4) 명대(1368-1644년)

명대는 순수한 한족의 문화를 정착시켜 한, 당, 송을 능가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따라서 명대에는 중화사상이 절정에 달하였고 전통적인 한족 문화가 소생되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호화로운 아름다움을 숭상하였다. 여성들은 얼굴화장으로 연지와 분을 사용하였으나 화려하지 않으면서 수려하고 청아함을 중시 하였다. 또 분은 꽃씨로 만든 진주분(珍珠粉)을 사용하였고, 연지를 바르는 습속도 계속 되었다. 섬세하고 가늘며 완곡하게 그린 눈썹 화장과 가늘고 작은 눈, 얇은 입술[그림 6]을 선호하였고 깔끔하고 흰 얼굴에 꽃장식이 없이 청순함과 우아함을 나타내었다.

왕삼빙(王三聘)의 「고금사물고(古今事物考)」에 “여인들이 분업을 좋아하고, 달이나 동전 모양을 연지같이 붉은 색으로 그렸다”(近世婦人粧 喜作粉靨 如月形 如錢樣 又以朱若臙脂點者)는 기록과 주청원의 「서호이집(西湖二集)」에 “얼굴이 아름답고 미간에 화전을 붙였다”(女子年可十六也 顏色 艷麗 眉間貼一花鈿)는 기록으로 보아 명대에도 여전히 화전과 장염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은 당인(唐寅)의 그림으로 눈은 버드나무 잎 같은 눈에 눈썹은 미간이 넓고 짧고 곡선적으로 표현 되었고 입술은 앵두입술에 이마, 코, 턱은 백색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당대와 송대의 인물화인 관세음보살상공양인견사에서 보여지는 화장법으로 당인의 작품에 영향을 주고 있다.



출처: 중국복식사

[그림 4] 배자,삼군,반비의 여자

5) 청대(1644-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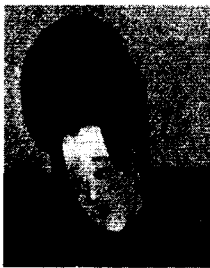
청대는 만주족이 설립한 왕조로 건륭초기에는 한족 진압정책을 강경하게 실시하였다. 한족과 만주족이 혼거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으며, 이는 인물화에도 영향을 미쳐 청대 여성들은 모두 긴 목에 여윈 어깨, 버들잎 같은 자태, 긴 얼굴, 가는

눈, 앵두 입술의 용모를 가졌다. 또 청대 인물화에는 형식상의 병태적인 아름다움 이외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함축하였는데 이는 여성미의 기초로서 청대 문인 장호(張糊)는 그의 저서에서 미인에 대해“꽃 같은 생김새, 새 같은 소리, 달 같은 표정, 버들잎 같은 자태, 옥 같은 골격, 얼음과 눈 같은 피부, 가을 물 같은 용모, 시사 같은 마음, 한목 같은 향 등 꾸밈이 없다”(以花爲貌, 以鳥爲聲, 以月爲神, 以柳爲態, 以玉爲骨, 以冰雪爲, 以秋水爲姿, 以詩詞爲心, 以翰墨爲香, 吾無間然矣)

고 하였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청대의 여인상은 내외적인 아름다움을 겸비된 미적 표준이 요구 되었으며 이는 화장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가(徐珂)의 「청패유사(淸稗類稿)」에서는 광서제(光緒帝)시기에는 상해의 기생들은 진한 연지화장을 좋아하였는데 대가집 규수[그림 5]들도 그것을 따라 하였다. 그러나 여학당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학생들은 옅은 화장과 단아한 복장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연지의 화려함을 모두 씻어내 현재는 분과 연지를 바르는 악습은 다시 부활되지 않았다.”(光緒帝, 滬妓喜施濃脂因而大家閨秀 紛紛效尤 自子女學堂大興而女學生无不淡裝服 洗盡鉛華無라復當年)고 기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림 6]의 청대 황후상은 눈썹은 명대와 같이 섬세하고 곡선적이나 술을 진하게 표현하고 눈꼬리를 올리는 화장으로 황후로써 강인함을 표현하였다. 입술은 본래의 입술 보다 작지만 붉게 그려 병약한 이미지 보다 민음직하며 단아한 모습이다.



[그림 5] 여악도



[그림 6] 효현순황후상

출처: 中國五千年女性裝飾史

Ⅲ. 시대별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 고찰

중국왕조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형태를 시대별로 비교 고찰하기 위하여 <표 1>에서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1. 당대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 형태

① 잠화사녀도(簪花仕女圖)

정원연간 주방(周昉)의 작품인 [그림 7]의 공양인 중 한 명의 화장을 살펴보면 당대를 대표하는 초승달눈썹으로 이를 계염미(桂葉眉)라고도 부른다. 당대는 옷과 두식이 화려해짐에 따라 눈썹은 짧고 굵게 강조하는 반면 눈의 선은 가늘고 길게 표현되었다. 또 작고 붉은 입술화장과 연지화장은 당대 화장 문화의 특징이 잘 표현되었다.

② 환선사녀도(執扇仕女圖)

전한(全漢)시대의 팔자미(八字眉)가 다시 당현종 원화년간에 새롭게 유행하여 주방의 작품 환선사녀도에 한대의 팔자미 보다는 그 길이가 짧게 그려졌다. 팔자미는 원래 서한(西漢) 시기의 눈썹 양식으로 중당시기에 이르러 다시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어 궁중은 물론 민간에 까지 모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유행 당시에는 “원화시기 세상의 화장” 이라 칭하였다.[그림8]

③ 혁기사녀도(弈棋仕女圖)

아스타나고분의 혁기사녀도[그림 9]은 바둑을 두는 귀족여인들의 모습으로 이마에 화전을 그려 넣고 얼굴의 양뺨에 붉게 연지화장을 넓게 했으며 입술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일부만 바르는 화장을 하였다. 혁기사녀도의 여성들의 얼굴은 턱이 둥글며 풍만, 농염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했던 당대의 풍조를 반영하고 있다.

④ 견병풍화(絹屏風畫)

견병풍화는 줄한 장웅의 증손자 예신의 묘인 아스타나 230호 묘에서 출토 되었다. 화장의 형태를 살펴보면 미간에 서부터 이마에 평모양의 화전이 붉은색으로 화려하고 크게 그려졌고, 뺨에는 옅게 분을 바르고 연지를 칠했다. 입술은 붉고 작으며 눈썹은 두껍게 그렸다. 당대에는 [그림 7]에서 [그림 10]과 같이 다양한 눈썹형태를 볼 수 있다.

당대의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국제적으로 개방되었고 경제가 성장하여 안정과 부흥을 이루게 됨에 따라 당대 귀족여성은 화려한 연지화장과 화전 등으로 화장문화에도 발전시켰다. 특히 당대 귀족여성의 한가로운 생활상을 표현한 환선사녀도와 혁기사녀도 등에 나타난 길은 눈썹형태와 붉고 화려한 연지화장으로 당대 은화화면서도 당당한 여성의 아름다움까지 표현하고 있다.

<표 1> 당대부터 청대까지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형태

시대	인물화명	장화사녀도(簪花仕女圖) [그림 7]	한선사녀도(執扇仕女圖) [그림 8]	혁기사녀도(弈棋仕女圖) [그림 9]	견병풍화(絹屏風畫) [그림 10]
당대 (唐代)	인물화				
	출처	中國服飾5000年	中國五天年女性裝飾史	中國服飾5000年	中國五天年女性裝飾史
시대	인물화명	관세음보살상공양인견서 (觀世音菩薩像供養人絹畫) [그림 11]	요대보월도(瑤臺步月圖) [그림 12]	신종후상(神宗后像) [그림 13]	비자육아도(妃子浴兒圖) [그림 14]
송대 (宋代)	인물화				
	출처	中國五天年女性裝飾史	中國服飾5000年	中國服飾5000年	中國五天年女性裝飾史
시대	인물화명	적봉원보산출토벽화 (赤峯元寶山出土壁畫) [그림 15]	몽고제왕가거도 (蒙古帝王家居圖) [그림 16]	산서성공동광승사 (山西省洪洞廣勝寺) [그림 17]	적봉원보산출토벽화 (赤峯元寶山出土壁畫) [그림 18]
원대 (元代)	인물화				
	출처	中國服飾5000年	中國五天年女性裝飾史	中國五天年女性裝飾史	中國服飾5000年
시대	인물명	효의장황후 (孝懿莊皇后像) [그림 19]	추풍한선도(秋風執扇圖) [그림 20]	효결숙황후상 (孝潔肅皇后像) [그림 21]	사녀도(仕女圖) [그림 22]
명대 (明代)	인물화				
	출처	中國服飾5000年	中國服飾史	中國服飾5000年	http://blog.daum.net/songchen/12035015
시대	인물명	비단욱(費丹旭)의 사녀도(仕女圖) [그림 23]	장엄(張儼)의영영조경도 (鶯鶯照鏡圖) [그림 24]	진홍수(陳洪綏)의 대경사녀도(對鏡仕女圖) [그림 25]	윤정비행악도병 (胤禛妃行樂圖屏) [그림 26]
청대 (清代)	인물화				
	출처	http://cafe.daum.net/hhh1670/LOHf/75	http://blog.daum.net/songchen/12035015	http://blog.daum.net/songchen/12035015	中國五天年女性裝飾史

2. 송대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 형태

① 관세음보살상공양인건서(觀世音菩薩像供養人絹畫)

굵은 눈썹과 이마에 화전을 그리고 붉은 입술에 이마와 뺨에 흰색의 화장[그림 11]을 하였다. 이는 당대의 삼백(三白)화장에서 응용되었으며, 삼백화장이란 이마, 콧등, 턱 부위에 흰색을 칠하는 화장을 말한다.

② 요대보월도(搖臺步月圖) 部分

유종고(劉宗古)의 작품으로 구름처럼 뽀족한 머리에 높은 이마의 운침교액 화장을 하였는데, 「풍창소독(楓窗小牘)」에 “변경의 규방 여인들의 화장은 여러 번 변하였다. 일찍이 어린 시절이던 송녕연간에는 기억되기를 큰 상투에 방형의 이마를 하였는데 정화, 선화 연간 사이에는 신속함을 숭상하여 머리를 어깨에 드리워 놓았다. 선화연간 이후에는 운침교액을 빗었으며, 귀밑머리를 금빛 봉황으로 받쳐 놓았다. 가난한 집에서는 심지어 가위로 오려서 머리카락에 받쳐 놓았다”고 하였다. 이걸로 보아 얼굴화장 외에도 독특한 화장문화가 유행하였다.[그림 12]

③ 신종후상(神宗后像)

황후와 궁녀2명이 모두 이마와 콧등, 턱 부위에 흰색을 칠하는 화장을 하였다.[그림 13] 이는 현대의 이마, 코, 턱 부위에 환하게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는 화장법이고 삼백(三白)화장은 당대에도 기록은 있으나 인물화를 찾을 수 없었다. 송대에는 제후상에 나타났고 명대에는 당인(唐寅)의 사녀화에 보여졌다. 눈썹은 굵고 곡선의 형태이며 입술화장은 붉다.

④ 비자욕아도(妃子浴兒圖)

단운장(壇轡)을 한 여성[그림 14]으로 단운장은 연지와 연분을 조합한 단홍(壇紅; 핑크색)으로 얼굴과 뺨에 바르는 것을 말한다. 얼굴에 바르기 전에 색이 조합되고 색채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에 바르면 색이 거의 균일하여 보는 사람에게 단정하고 정숙한 느낌을 준다. 눈썹은 가늘고 곡선적이며 입술의 형태는 작고 얇으며 색상은 붉다.

송대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의 공통적인 특징은 당대의 화려한 연지화장이 엷어졌는데 이는 송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나타난 순박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화장문화에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비자욕아도는 가늘고 곡선인 눈썹과 작고 붉은 입술화장은 송대의 여성미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송대 인물화의 또 다른 특징적인 화장형태는 삼백화장인데 관세음보살상공양인건서의 공양인과 신종후상의 황후와 궁녀2명

모두 이마와 콧등, 턱 부위에 흰색을 칠하였다. 이는 불교를 숭상한 당대의 화장문화가 송대에까지 이어졌다.

3. 원대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 형태

① 적봉원보산출토벽화(赤峯元寶山出土壁畫)

원대 여성[그림 15]으로 진하진 않지만 얼굴 전체에 붉은 화장을 하였으며 팔자미의 눈썹형태에 입술연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정이 없고 얼굴의 형태는 송대 여성보다 풍만하고 둥글다.

② 몽고제왕가거도(蒙古帝王家居圖)

세조의 황후인 철백이의 인물상[그림 16]으로 얼굴과 뺨에 붉은 계통의 진한 화장을 하였으며 이는 원래 몽고의 화장법으로 거친 환경에서의 얼굴 보호만이 아니라 몽고 여성의 미를 표현한 것이라 생각 되며 이와 함께 가늘고 긴 일자 눈썹 또한 원대 귀족 여성의 특징 있는 화장법이었던 것 같다. 입술은 작게 그렸으며 화전은 보이지 않는다.

③ 산서성공동광승사(山西省洪洞廣勝寺)

화전을 한 원대 여성[그림 17]으로 이호고(李好古)의 「사문도장생자해(沙門島張生煮海)」에 “미간을 움직이니 화전도 움직인다 소매 안의 열개의 하얀 손을 볼 수 있다”(蛾眉輕展花鉤動 袖兒籠指十葱)는 기록과 같이 송대의 인물화에서는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지 않던 화전이 당대의 화전과 같이 화려하거나 다양하진 않지만 꽃모양으로 인물화에 묘사되어 있다.

④ 적봉원보산출토벽화(赤峯元寶山出土壁畫)

적봉원보산출토벽화에 그려진 시녀[그림 18]로 송대의 인물화에서는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지 않던 화전이 당대의 화전과 같이 화려하거나 다양하진 않지만 꽃모양으로 인물화에 묘사되어 있다. 눈썹의 형태는 가늘지만 길고 끝이 올라가 있으며 입술은 붉은 색에 형태는 일부만 표현 되어 있다.

원대는 몽고인이 중국을 장악했지만 한족의 심미관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고 사회, 경제, 정치 등 각 방면에서는 쇠약해졌다. 이민족의 민족적 충돌은 송대 여성들의 전통을 계승하지 못했고 당대 인물의 스타일과 풍격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산서성공동광승사와 적봉원보산출토벽화에 그려진 인물화에 화전이 당대의 화전과 같이 화려하진 않지만 표현되어 있고 인물의 형태나 풍격은 당대의 인물화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몽고제왕가거도의 철백이의 인물상은 몽고의 거친 환경에서의 얼굴을 보호하는 화장문화와 독특한 일자형의

눈썹으로 몽고식 화장형태를 다소나마 보여주고 있다.

4. 명대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 형태

① 효의장황후(孝懿莊皇后像)

효의장황후의 인물상이다. 이때의 화장 형태는 가늘고 약간 굽은 눈썹, 가늘고 작은 눈, 얇은 입술을 선호했으며 연지와 분을 바르는 화장은 빼 놓을 수 없지만 화려하지 않으면서 수려하고 청아함을 중시하는 화장을 하였다. [그림 19]의 인물상 역시 당시 궁중의 화장 형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가는 눈썹과 작은 눈, 작지만 얇은 입술에 붉은 화장이 담백함을 느끼게 한다.

② 추풍환선도(秋風紈扇圖)

당인(唐寅)의 작품으로 짧고 가늘지만 곡선인 눈썹과 작은 눈, 작고 붉은 입술로 명대의 화장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넓은 이마에 가름한 얼굴의 옅은 분 화장은 송, 원대 여성보다 청아하며 여린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명대 여성의 미의식인 맑고 수려한 심미적인 면을 잘 표현하였다.[그림 20]

③ 효결숙황후상(孝潔肅皇后像)

효결숙황후의 인물상[그림 21]으로 방형의 이마에 얼굴의 분 화장은 진주 분으로 얇게 하였으며 눈썹화장은 가늘고 길게 하였다. 입술은 붉게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수려한 미감을 표현하였다.

④ 사녀도(仕女圖)

명대 화가인 당인(唐寅) '사녀도'의 주인공들은 송대 이전의 '장환'의 <픽국부인유춘도>나 '주방'의 <잠화사녀도>에서 등장하는 궁정 귀족 여인이 아닌 민간의 여성들이다. 당시 도시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당인이 가장 좋아했던 저잣거리의 생활이 그대로 배어 있는 여인들이었던 것이다. 당인은 이러한 여인들을 향시 '항아(嫦娥)'에 비유하곤 하였다. [그림 22]에서 당시 도시여성의 머리형태와 의복 모양 등 일반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으며 화장의 형태는 눈썹은 끝을 아래로 향해 그렸으며 눈은 작고 길게 표현되었다. 분 화장은 얼굴전체에 옅은 하였으며 입술화장은 하지 않았으나 입술은 작았다. 이로써 명대의 서민여성들은 눈썹은 그렸으나 입술화장은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명대는 국가의 정권이 안정 된 시기로 인물화는 문인화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인물화에 표현된 여성의 용모는 유연하고 깨끗하며 몸매는 아름다움

균형을 이루며 행동에서는 평안하고 고요한 아름다움이 들어났다. 이는 화장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추풍환선도의 인물화에 이러한 사회상과 여성미를 반영한 화장의 형태가 보인다. 또 효의장황후나 효결숙황후상에서도 명대 화장문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으며 편안하고 고요한 자태 속에서도 단호한 황후의 모습이 엿보인다.

5. 청대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 형태

① 비단옥(費丹旭)의 사녀도(仕女圖)

청대의 비단옥은 청말에 미인화로 이름이 높았던 화가로 청초하면서도 관능적인 아름다움이 풍기는 사녀화를 많이 그렸다. [그림 23]도 넓고 둥글지만 깨끗한 이마에서 느껴지는 여린 소녀의 모습이 보이며 가름한 얼굴에 가늘고 곡선을 그리는 눈썹과 가늘고 눈꼬리가 올라간 눈과 작고 붉은 입술은 수줍지만 관능미를 느끼게 한다.

② 장엄(張儼) 앵앵조경도(鶯鶯照鏡圖)

“젊은 아가씨 눈썹 화장하면서
거울 앞에서 바보처럼 중얼거리네
내 이쁜 얼굴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
옷걸이 앞에 다가가 비단옷 입네”
(丫鬟女子畫娥眉 鸞鏡臺前語似癡
自說玉顏難比並 卻來架上著羅衣)

라는 위의 시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썹 화장을 하는 여성의 모습[그림 24]으로 아래로 처진 눈썹이 병약해 보이며 입술 화장은 옅으나 붉은색이라기보다 분홍색에 가깝다. 이는 청대여성 의 나약하고 힘없는 심미적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이처럼 도식화 된 병태적인 미인이 당시 여성미를 대표하였다.

③ 진홍수(陳洪綏)의 대경사녀도 (對鏡仕女圖)

명말, 청초의 진홍수의 사녀도[그림 25]로 얼굴의 형태는 턱이 많이 둥글며 눈썹의 미간은 넓고 눈썹의 머리부터 산까지는 직선이나 산부터 꼬리부분은 눈 끝부분까지 처진 형태를 보인다.

입술은 전체적으로 작은 입술에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은 톡툭하고 붉은색 을 띠고 있다.

④ 윤정비행악도병(胤禎妃行樂圖)

눈썹은 섬세하고 완곡한 느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입술화장은 윗입술은 극히 얇고, 아랫입술은 요염하고 작은 원형에 가깝다. 그리고 연지를 발랐다.

청대의 인물화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명대의 화장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또 다른 청대의 여성미의 특징은 나약하고 병태적인 미인이 당시를 대표 하였다. 장엄의 앵앵조경도와 운정비행악도병 등 인물화에 창백한 느낌의 분을 사용했으며, 입술도 작고 얇은 분홍색의 입술화장으로 병태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표현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중국의 시대별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를 고찰한 결과, 각 시대별 화장의 형태를 잘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중국의 시대별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형태

인물화의 특징	인물화	얼굴형	눈, 눈썹	입술	화장형태 고찰
당대 (唐代)					둥글고 풍만한 얼굴형, 짙은 눈썹, 붉은 뺨에 연지화장, 작고 붉은 입술, 꽃모양의 화전,
					이마의 화전이 화려함. 눈썹은 굵고 두꺼움. 입술은 앵두와 같이 작고 붉음. 이런 화장의 형태는 호풍이라고 함. 당대는 이민족의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로 화장문화에도 영향을 받음.
송대 (宋代)					당대보다 가름한 얼굴, 가늘고 곡선의 눈썹 작은 입술, 이마와 코, 턱의 삼백화장, 당대의 붉은 연지화장은 없어짐.
원대 (元代)					당대의 둥글고 풍만한 얼굴형, 이마의 화려해진 않지만 꽃모양의 화전, 가늘고 곡선의 눈썹, 작고 도톰한 입술.
명대 (明代)					송대보다 가름한 얼굴형에 눈썹은 짧고 가늘며, 눈도 작게 묘사되어 단아함이 느껴짐. 입술도 작고 색이 없어 청담함.
청대 (清代)					청대의 화장의 형태는 명대와 다르지 않으나 병적인 여성미의 기준이어서 눈썹은 아래로 쳐졌으며, 얼굴도 창백한 느낌의 분을 했으며 입술도 작고 얇은 분홍색을 칠했음.

V. 결론

중국의 시대별 인물화에 화장 문화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면,

1. 당대 여성의 화장은 중국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육감적이어서 당시 아미를 농염하게 그리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눈썹을 위로 치켜 올리듯 그려 여자의 풍격과 운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인물화 혁기사녀도와 잠화사녀도의 눈썹에서 잘 나타나며 또 당대에는 뺨과 입술의 연지 화장으로 붉은색을 많이 사용 하였는데 이는 모든 색채 중에서도 붉은색이 가장 눈에 띄며 태양의 색, 피의 색, 신성의 색으로 고대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색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당대 여성의 화장에 특히 붉은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송대는 이학(理學)이 통치 사상으로 미학에도 영향을 끼쳐 이성(理性)의 미가 출현하였다. 이는 복식(服飾)뿐 아니라 화장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 청담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3. 원대는 이민족 문화를 수용한 다민족 국가였으나 당나라식 미인의 심미의식을 가져 둥근 계란형의 얼굴에 눈은 봉황의 눈매에 입술은 작고 풍만하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다.

4. 명대와 청대는 송대에 이어 가늘고 곡선적인 눈썹에 앵두 같이 작은 입술이 인물화에 많이 나타났다. 특히 청대에는 어리고 연약하고 섬세한 여성이 이상형으로 여겨졌는데, 이런 유형의 여성상은 명대 후반기부터 점차적으로 문학작품에서부터 일반화 되었다. 하지만 당시 화가들은 여전히 건강한 여성을 선호하여 인물화나 미인도에 실제 여성들보다 풍성한 이미지의 유형을 그렸다.

이상으로 중국의 시대별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를 고찰한 결과, 당대에서 청대까지의 화장의 형태는 각 시대 여성의 미인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 미인상은 그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현상을 반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화장문화에 대한 자료가 당대로 편중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림 보다는 사진으로 규명하여 중국의 시대 별 화장문화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인물화에 나타난 화장문화의 자료수집에 따른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고, 화장문화와 함께 시대상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복식과 함께 연구 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 인물화, 화장형태, 중국왕조

참고 문헌

- 李京宜(2003) 연지(胭脂)화장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한국과 중국 여성의 化粧文化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영미(2001) 현대에 표현 된 중국 唐과 서역의 여자 化粧 및 頭飾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김선영(1993) 東·西洋 化粧文化에 關한 研究 -14C~19C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서주·박옥련(1999) 唐人 化粧文化에 關한 고찰. 경성대학교논문집, 제20호 2권.
- 박보영, 황춘섭(1998) 韓國·中國·日本 女性の 色調化粧文化. 복식 39호, p. 222
- 문광희역(1997). 동양복식사논고-고대편-, 서울; 경춘사.
- 문광희역(1997). 동양복식사논고-중세편-, 서울; 경춘사.
- 朴聖實·李秀雄 譯(1992). 중국복식사, 서울; 경춘사.
- 손경자 역(1995) 중국복식5000년. 서울; 경춘사.
- 이재성(2005). 의식주를 통해본 중국의 역사. 가람기획.
- 김춘득(2002) 동서양 미용문화사, 서울; 현문사.
- 하루야마 유키오(2004). 화장의 역사, 서울; 사람과 책.
- R.H.반홀릭, 장원철 옮김(1993) 中國性風俗史, 서울;까치글방.
- 趙孝順(1992) 한국복식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 인터넷카페 고고미술회화 '청대화가 비단옥의 사녀도'. 자료 검색 2008. 10. 3, 자료출처<http://cafe.daum.net/hhh1670/LOHf/75>
- 인터넷카페 청경우독'자설옥안란비명', 자료검색 2008. 10. 15, 자료출처 <http://blog.daum.net/songchen/12035015>

(2009. 2. 27 접수; 2009. 5. 8 채택)